전자랜드 매각설…농구단 존폐 위기

롯데·이마트 등 인수 검토 중이지만…
프로농구팀 1년예산 50억~100억원
끌어안고 갈지는 의문…인수전 촉각



프로농구 전자랜드 블랙슬래머가 모기업의 매각설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시즌 KT와의 6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는 전자랜드 선수단의 모습. 스포츠동아DB

프로농구 전자랜드 블랙슬래머가 모기업의 매각설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자유통업체 전자랜드를 둘러싸고 최근 업계에는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게다가 롯데, 이마트(신세계) 등 유통업계 유력기업들이 전자랜드 인수를 검토 중이다. 롯데와 이마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전자랜드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

인수전 결과에 따라 전자랜드 블랙슬래머의 운명도 정해질 전망이다.

프로농구계 한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전자랜드 주최 농구단 단장 모임이 갑자기 취소됐다. 모기업 매각 추진의 여파로 전자랜드 농구단에도 비상이 걸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어 "신세계의 인수가 유력하다는 말이 있다. 그럴 경우 여자프로농구단 운영을 포기한 신세계가 남자프로농구단을 운영할 리 없다. 농구단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로농구 A구단 관계자도 "얼마 전부터 전자랜드의 농구단 운영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전자랜드의 지주회사격인 부산의 한 건설사로 농구단 운영권을 넘긴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아직 어떤 기업이 전자랜드를 인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수기업이 확정되더라도 농구단까지 떠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신세계가 전자랜드를 인수하면 농구단은 다른 기업을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이미 지난달 여자프로농구단 해체를 선언하면서 프로농구단 운영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신세계 이외의 다른 기업이 전자랜드를 인수해도 농구단까지 흡수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남자농구단 운영에는 연간 50억~1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대기업에도 부담스러운 액수다.

또 한때 국내 최고의 실내스포츠로 각광받던 농구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농구단 운영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랜드 블랙슬래머의 위기설로 한국농구연맹(KBL)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1997~1998시즌부터 10개 구단으로 운영된 KBL은 1개 구단이 줄어들 경우 각종 스폰서와 TV 중계권 계약 등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지난해 한선교 총재 취임으로 재도약을 노렸던 KBL은 한 시즌 만에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KBL은 14일 정기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다. 전자랜드 농구단과 관련된 논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트위터@b612min

확 달라진 김비오…"난, 골프를 즐긴다오"

■ 원아시아투어 GS칼텍스 매경오픈 2R

2년 만에 국내 무대서 공동2위
내년시즌 PGA투어 재진출 노려


김비오

"골프를 즐기지 못했다. 그저 스윙만 했다."

미 PGA 투어 재진출을 노리는 김비오(22·넥슨)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11일 경기도 성남 남서울 골프장에서 열린 원아시아 투어 GS칼텍스 매경오픈(총상금 10억원·우승상금 2억원)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치며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2년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까지 넘볼 수 있게 됐다.

2008년 일본 아마추어골프선수권에서 우승한 뒤 2009년 프로로 전향한 김비오는 데뷔 첫 해인 2010년 조니워커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고, 그 해 KPGA 대상과 덕춘상(최저타수상), 명출상(신인상)을 휩쓸었다. 정상 등극 후 숨겨진 비밀이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긴장하면 심장박동수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선천성 빈맥성 부정맥'이라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 조니워커오픈 우승 직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2006년 레이크힐스오픈 때는 라커룸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기도 했다. 역경을 이겨내며 오른 1인자였기에 더욱 값졌다.

김비오는 2010년 12월 PGA 무대를 노크했다. 지옥의 레이스라 불리는 Q스쿨에 도전해 11위(상위 25위까지 풀시드)로 통과하며 한국 선수로는 최연소 미 PGA 입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활약은 미미했다. 상금랭킹 125위 밖으로(162위) 밀려나며 시드를 잃었다. 그는 "너무 급했다. 잘 쳐야 한다는 부담과 욕심 때문에 골프를 전혀 즐기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이번 대회 성적으로도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목표는 내년 시즌 미 PGA 투어 재입성이다. 그는 현재 2부 투어 격인 네이션 와이드 투어와 국내 투어를 병행중이다. 네이션 와이드 투어(상금순위 25위 이내)를 통해 PGA 투어에 재 입성하는 게 1차 목표다.

2년 만에 국내 대회 우승 기회를 잡은 김비오는 "모처럼 국내 대회에 출전하니 마치 집에 온 기분이다. 특히 외롭지 않아서 좋다.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우승을 노려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2라운드 경기에선 김비오와 함께 경기한 박상현(29·메리츠금융)이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를 쳐 선두로 나섰다. 김경태(26·신한금융그룹)는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간합계 2언더파 142타로 제자리걸음했다.

성남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 제90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폐막


11일 열린 제90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여자 일반부 단식 결승에서 문경시청 박경란선수가 마지막 점수를 얻어 우승이 확정되자 두 손 들어 환호하고 있다. 상대는 대구은행 소속 최승주.
문경 | 이훈구 동아일보 기자ufo@donga.com

박경란 '동아 트리플 크라운'

여일반 단식 정상…중·고교때도 각각 우승 인연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정구 라켓을 잡았다. "정구부 선수들은 4교시만 하더라고요. 우린 6교시를 해야 했는데…." 어린 마음에 더 놀고 싶어 시작했던 정구였다. 이젠 삶의 전부가 돼 한국 여자 정구를 이끌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스무살인 문경시청 박경란이다.

박경란은 올해로 90회 째를 맞은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에서 뜻깊은 기록 하나를 세웠다. 학창 시절 이 대회 중등부와 고등부를 석권한 데 이어 일반부에서도 단식 정상에 오르며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했다. 박경란은 11일 경북 문경시민정구장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단식에서 최승주(대구은행)를 3-2로 눌렀다. 문경서중에 다니던 2007년 이 대회 중등부 단식 챔피언 출신인 그는 2010년 경북관광고 때 고등부 단식을 제패했다.

3월 회장기에 이어 시즌 2관왕에 등극한 박경란은 "겨울 훈련 때 새벽부터 운동장을 뛰고 웨이트트레이닝을 해 너무 힘들었다. 다행히 그 효과로 체력이 좋아졌다"고 웃었다. 박경란은 게임 스코어 2-2로 팽팽히 맞선 5번째 게임에서도 4-4까지 맞서다 내리 2포인트를 따낸 뒤 백핸드 발리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대회를 유치한 문경시청은 남녀 일반부 단체전과 복식 등에서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아 무관에 그칠 위기에 빠졌으나 지난해 입단한 문경 토박이 박경란의 선전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문경시청 주인식 감독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녔다. 승부욕이 워낙 강해 지기를 싫어한다"고 박경란을 칭찬했다.

대회 사상 첫 4년 연속 우승을 노렸던 최강 김애경(농협은행)은 8강전에서 최승주에 1-2로 패해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문경 | 김종석 동아일보 기자 kjs0123@donga.com

경기전적〈11일〉

●남자 일반부 단식 결승=이중섭(이천시청) 3-0 김상현(대전시설관리공단) ●여자 일반부 단식 결승=박경란(문경시청) 3-2 최승주(대구은행) ●남자 고등부 단식 결승=권기빈(문경공고) 3-0 김동언(문경공고) ●여자 고등부 단식 결승=신수행(마산제일여고) 3-1 오현지(순천여고)

주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후원: KRA 한국마사회 YONEX





